

[기획]

중도, 청산도, 유치·장평, 창평

슬로시티로의 초대

효심이 만들어낸 '이중 장례' 짚더미 무덤



청산면 도청리 언덕에 마련된 초분. 만들어진 지 1년 된 이 초분은 짚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란색 그물로 꼼꼼히 덮여놓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5 완도 청산도 초분

만들어 진지 1년 된 초분(草墳)은 청산면 도청리 야트막한 언덕 한 쪽에 오롯이 서 있었다. 3월 하늘을 가득 채운 찬바람 때문인지, 노끈으로 꼼꼼히 여며진 초분은 어느 무덤보다도 외로워보였다. 장난감 초가집처럼 생겨서일까, 작은 풀집 속에 시신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다.

초분의 주인인 90대 지관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장례는 초분으로 치러달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유족들도 3년쯤 후에 또다시 땅에 시신을 묻는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감보다는 아버지,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받들겠다는 효심에서 망자의 유언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몸을 들어 던질 듯 거세게 불어대는 바닷바람을 버티며 초분을 바라다보려니, 평생 타인의 무덤 자리를 보아 온 지관이 초분에 묻히려 했던 심사가 가슴속에 사무쳐온다.

노란색으로 물든 짚 더미 아래, 나무관에 담겨 안치된 망자는 생전에 맞았던 해풍을 죽은 후에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것이다. 매년 초분을 새로 만들기 위해 먼 곳에서 찾아 온 아들, 딸의 얼굴을 죽여 서나마 지켜보고 있으리라. 또 3~4년 후에는 육탈된 시신에서 하얀색 뼈를 추려내는 가족들의 애절한 손길을 느끼며, 바로 옆에 만들어놓은 묘지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들 것이다.

청산면 도청리와 지리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분을 만드는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초분

은 망자의 시신을 땅에 바로 묻지 않고 관을 땅 위에 올려놓은 뒤 이엉 등으로 덮어 두었다가 2~3년 후 뼈를 골라 땅에 묻는 '이중 장례 풍습'이다. 청산도에는 이런 초분이 10개 정도가 남아있다.

어업을 주로 하는 섬 문화의 특성상 육지의 집에서 갑자기 상을 당했을 때, 먼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간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임시로 장례를 치르던 것이 초분을 만드는 형태로 굳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또 청산도에는 정월에 땅을 파면 우환

전통 장례풍습 오롯이

전국서 청산도에만 남아

이 생긴다는 속설에 따라 '정월에 초상이 나면 초분을 만든다'는 자치규약이 있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월에 초상이 나면 100% 초분을 만들었다고 한다. 청산도 주민들은 특히 초분 만드는 것을 '집안의 자랑이자 명예'로 생각한다고 한다. 초분을 하려면 3~4년 후 시신이 육탈 된 뒤 정식으로 땅에 매장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어지간한 효심과 재력 없이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초분은 이처럼 일반 무덤보다 관리가 어려운데다, 매년 정기적으로 이엉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 등 손이 많이 간다는 점에서 청산도 주민들은 일종의

'시묘살이'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 민속학자들의 얘기다.

초분을 만드는 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망자의 시신을 나무관에 담은 것까지는 일반 장례풍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이후엔 돌과 소나무 가지를 깔아 평평하게 만들어놓은 터에 나무관을 안치하고, 짚으로 덮어씌운 뒤 노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일단 초분을 만든 뒤엔 1년에 한 번씩 짚을 새로 갈아줘야 한다. 또, 3년쯤 뒤에는 손재수가 없는 날을 골라 뼈를 골라낸 뒤 초분 인근에 마련해 놓은 묘지에 정식으로 매장한다.

청산도의 최고참 문화해설사 김미경(45)씨는 "청산도 주민들에게 초분은 부와 명예의 상징이자, 효심을 드러내는 자랑거리"라며 "하지만 고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대도시의 풍습이 흘러들어오면서 초분으로 장례를 치르는 주민들이 크게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슬로시티(Slow City)란



고유한 자연환경과 생활방식, 전통음식을 보존하고 이를 토대로 '삶의 질'을 높여가는 마을. 한국에선 신안군 중도와 완도군 청산도, 장흥군 유치·장평, 담양군의 창평이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개 국가에서 101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다.

여행노트

청산도를 다녀와서

'청산도에 가서 글자랑 하지 마라' "옛날에는 신홍리가 가난하기로 유명하요. '신홍리 큰애기 쌀 서 말 못 먹고 시집간다'고 그랬지라."

청산도 읍리 노인회장 양금수(76)씨는 척박했던 섬 생활에 대해 얘기한다. 섬이지만 바다보다 논과 밭에 기대 살았다. 가파른 산자락을 일궈 농사지를 땅을 만들었지만 돌이 많은 섬은 돌가두기가 쉽지 않았다.

그 방편으로 이용했던 것이 또 돌이다. 넓적한 돌을 논바닥에 깔았다. 흙은 기름지지 못 했고 해마다 많은 양의 퇴비를 만들어 땅심을 북돋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이것이 청산도의 '구들장본'이다. 구들장 같은 돌을 깔고 그 위에 다시 흙은 덮어 만든 논.

산을 깎아도 농사지를 땅은 모자라기만 했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 물에 살던 처녀가 청산도로 시집을 갔다. 시어머니가 "오늘은 12개의 밭을 매라"고 시켰다. 종일 밭을 맨 새색시는 저녁 무렵 허리를 펴고 일한 밭을 세어보니 아무리 봐도 11개 밖에 안 되었다. 설움에 북받쳐 울다 자리를 털고 일어섰는데, 바로 그곳이 12번째 밭이었다.

척박한 땅에서 나오는 쌀은 부족하기만 했다. 그래서 '청산도 큰애기 시집갈 때까지 쌀 서말 먹기 힘들다'는 말이 있었고 이곳에서 자란 처녀가 물으로 시집갈 때까지 쌀 세말만 먹으면 '부자집 큰애기'라는 소리를 들었다. 고단한 살림을 꾸려가야 했기에 '속 모르면 청산도로 시집가지 마라'는 말도 있었다.

꼭꼭한 삶을 힘들게 이어가야 했던 청산도 사람들, 하지만 청산도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청산도 가서 글자랑 하지 마라'는 말도 있다. '똥장군 지고도 한시를 읊던 게 청산 사람들'이라 했다.

청산도 부흥리에는 송모사(崇慕祠)라는 사당이 있다.

굼은(橋隱) 김류(金澗, 1814~1884) 선생을 모시는 사당으로 해마다 3월 3일이면 제를 올린다. 조선 말기 한학자 굼은 선생은 청산도와 가까운 거문도 사람으로 34세에 노사 기정진의 문하에 들어가 학문을 익혀 후학 양성에 힘썼다. '청산도에서 글자랑 하지 마라'는 그 굼은 선생과 관계가 깊다.

"굼은 선생이 집인 거문도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청산도로 오게 됐는데 섬 풍광도 좋고 사람들 인심도 좋은 거야. 그래서 청산도에 서당을 지어갖고 수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제. 그때부터 청산도에 한학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의를 중시하게 됐제."

양금수씨의 말과 다르게 지승문이라는 사람이 굼은 선생의 명성을 듣고 거문도에서 직접 선생을 모셔왔다는 얘기도 있다.

청산도 교육열을 나타내는 말로 '청산도 사람들은 친척 버선까지 팔아서 지식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일찍이 학문의 열기가 자리 잡은 섬에는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했고 그 결과 어느 섬보다 사회 진출에 성공한 이들이 많았다.

청산도 사람들의 사회 진출이 왕성했던 것은 향상된 경제력에 덕분도 있다. 지금은 완도행 선착장일 뿐인 도청항은 1960년대 파시가 쇠던 남해 어업 중심지였다. 고등어, 아지 등 만산을 이룬 고깃배들이 선창을 가득 채웠다. 파시는 주민들의 살림을 넉넉하게 했고 물로 자식들을 유학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양금수씨는 "청산도에는 효열비가 많다. 땅이 척박해도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식을 가르치려는 의지가 청산도 사람들에게 있었다. 그 뒷 배경에는 굼은 선생의 영향으로 유학을 숭상하고 배움을 중시했기 때문이다"라며 말을 맺었다. /글·사진=김창현(프리랜서)

점점이 구들장은

꼭꼭한 삶 한눈에

고즈넉한 도청항

등대가 반갑게 맞아



여객선이 닿는 도청항 등대. 고등어 파시가 크게 열렸던 1960년대 도청항은 남해안 어업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Advertisement for plastic surgery and medical services in Gwangju. Title: '미용성형수술은 성형외과 전문의와 함께' (Plastic surgery is with plastic surgeon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clinics like '광주 성형외과 개원의 협의회' and '광주성형외과'.